



문 의	특허심사3국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팀 장 김종찬	042-481-5758
		사무관 윤난영	042-481-5948
	2017년 5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23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디스플레이의 끝없는 진화, 롤러블 디스플레이!

-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급증 -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둘둘 말아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붙임 1]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붙임 2]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로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 필요시 펼쳐 사용할 수 있어 향후 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32건이 출원되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 경 상용 모바일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전망¹⁾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붙임 2]

1) 자료출처 :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4월 발간)

최근 10년간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40건으로 53%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LG디스플레이가 26건으로 35%를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 등이 9건을 출원하여,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붙임 3].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 출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국내기업들이 CRT 및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제1, 2 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붙임 4]

특허청 김종찬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국내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특허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IP Together』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개정 특허법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사3국 디스플레이심사팀 윤난영 사무관에게 연락(☎ 042-481-5948)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내 기업의 롤러블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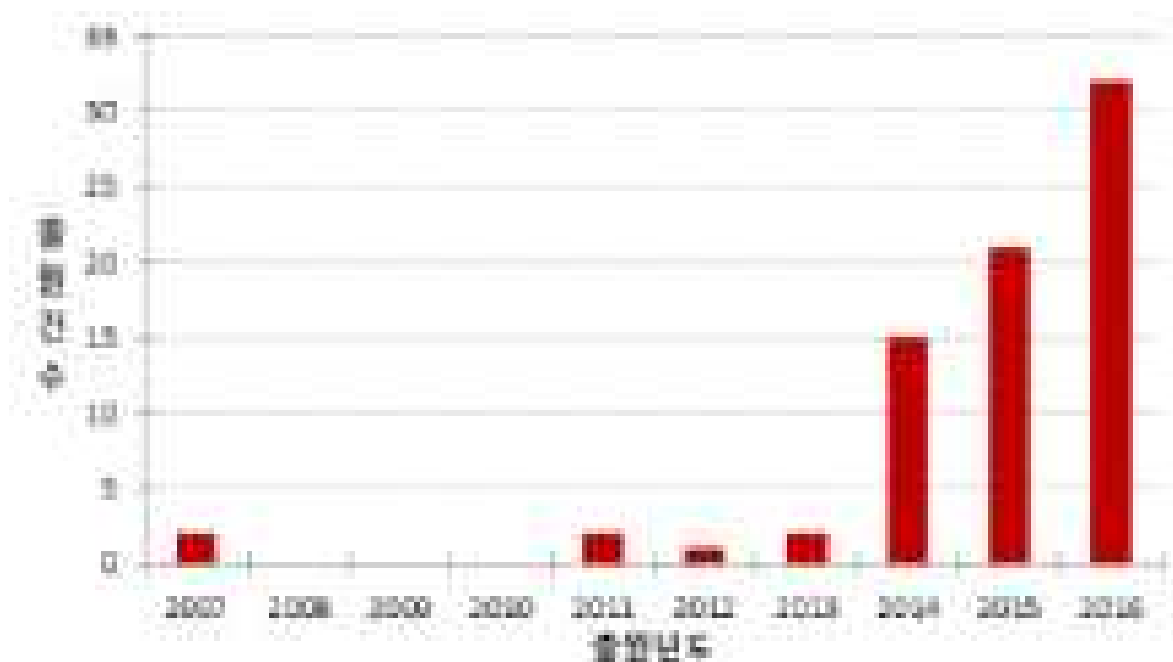


국제디스플레이정보학회(SID) 2015에서
발표한 LG디스플레이의
18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
(출처: LG디스플레이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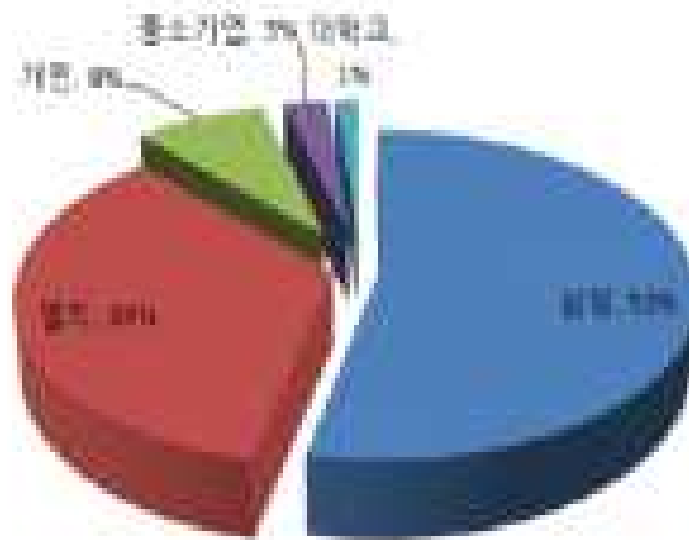
국제디스플레이정보학회(SID) 2016에서
발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5.7인치 컬러 롤러블 디스플레이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블로그)

[붙임 2]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동향(2007년~2016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2	0	0	0	2	1	2	15	21	32

[붙임 3] 출원인별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동향(2007년~2016년)



[붙임 4] 연도별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동향(2007년~2016년)

